

# 녹색 미래·힐링 '竹竹'...손님맞이 준비 '착착'



- 기간=9월17일~10월31일(45일간)
- 주제=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
- 장소=담양읍 향교리 죽녹원 일원
- 사업비=145억원
- 면적=31만3023㎡(전시면적 1만7743㎡)
- 관람목표=90만명(외국인 2만명)
- 내용=대나무문화·산업국제교류전 학술회의·전시, 이벤트 등



컴퓨터그래픽으로 미리 본 대나무 생태·문화관내 '대나무 생활존' 모습. 산과 들을 배경으로 실제 대나무 무기·놀이도구와 함께 이를 사용하는 상황을 그래픽과 말풍선 방식으로 설명해 폭넓은 대나무의 활용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 제공>

## 메인전시·체험콘텐츠 최종 확정 박람회 상징조형물 조성도 박차 미디어아트·공연 등 볼거리 풍성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행사 다채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의 모든 것을 집약하는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개최가 9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열리는 담양 최초 국제행사로서 세계 대나무총회 제10차 회의와 대나무 문화·산업 전시, 체험·공연행사 등 대나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다.

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의 랜드마크가 될 상징조형물 제작을 비롯해 박람회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메인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최종 확정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가 착착 이뤄지고 있다. 대나무박람회장내 주요 전시장과 운영 프로그램을 미리 살펴봤다.

◇'테라피 로드'를 따라 펼쳐지는 대숲 이야기=박람회장은 크게 ▲주제 체험구역(죽녹원) ▲주제 전시구역(전남도립대 운동장) ▲체험교육 구역(종합체육관)으로 구분된다.

죽녹원은 박람회의 '지붕 없는 주제관'으로 재탄생한다. 죽녹원 산책로에 조성되는 오감체험관은 대나무터널과 대나무 지압길 등을 설치해 정량한 대바람을 쐬며 힐링(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죽마고우길'에는 미디어 아트관이 설치된다. 전통적으로 대숲을 표현한 '죽죽도'와 현대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이이남 작가의 '신(新)죽죽도' 등 다채로운 미디어아트 연출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소통공간으로 구성된다.

담양 대나무관에서는 동선별 테라피 로드(치유길)와 대나무 종류 등 죽녹원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대나무관에 조성된 전망대에서는 담양의 빼어난 경관, 대금·소금·피리 등 명인들의 대나무 악기 공연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대나무의 생태·문화·산업이 한자리에=주제체험 못지않게 흥미를 끄는 곳이 전남 도립대 일원의 '주제전시 구역'이다. 이곳은 ▲대나무 생태·문화관(대나무 문화존·대나무 생활존) ▲대나무 미래성장관(대나무 명인



죽녹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담양대나무관내 '죽녹원 전망대'.

존·대나무 신(新)산업존·대나무 녹색미래존) ▲대나무 기업·국제관으로 구성된다.

생태·문화관은 문학 작품 소재에서 약이나 식용까지 다양하게 쓰이는 대나무의 가치를 전시물 형태로 설명한다. 50여종의 세계 대나무가 선보이는 대나무 아카이브도 마련된다.

생태문화관 오른편 '미래성장관'에서는 대나무 신산업화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대나무 친환경 제품이 전시되고, 대나무 필라멘트와 에디스 전구 등 대나무를 이용한 과학적 실험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대나무 명인존에서 서신정(재상장), 고행주(참빗장), 박성춘(죽렴장) 명인 등 대나무 명인들의 공예 시연을 보고 명인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나무 기업관에는 국내외 기업이 참가하는 64개 부스가, 국제관에는 중국·일본·말레이시아 등 개별 기업부스 27개 전시 부스와 산업화 아이디어 우수작 전시공간 3개 부스가 배치된다.

◇어린이 '창의력 교실' 등 체험교육 다채=최근 박람회의 추세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행사다. 체험 교육 구역에는 '체험 놀이관'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구매도 하는 '친환경 농업관', 담양과 대나무의 미래를 제시하는 '주제영

상관', '박람회 홍보관'이 관광객을 맞는다.

'주제영상관'에서는 하루 15~18차례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3면 프로젝트 맵핑과 중앙의 홀로그램 스크린을 활용해 실감나는 무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나무 체험놀이관'에서는 어린이 발명 '창의력 교실'과 담양 스텝프렐리, 교과과정 '대나무 과학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추석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축하공연 외에 멀티 미디어 쇼도 박람회장 곳곳에서 열린다.

관광객 불편을 고려해 출입구는 4곳에 설치되며 차량 1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한다.

주차장과 박람회장 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박람회장 주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한 '프리 패스'를 이용하면 행사 기간 박람회 입장권 1장으로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다.

한편 박람회조직위는 당초 9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D-100일'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호흡기중후군(MERS) 확산 우려에 따라 계획한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irg@



세계대나무박람회 상징 게이트

### ■ 세계대나무박람회 행사장 개요



# 60주년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대회

**접수기간**  
2015. 6. 9(화) ~ 6. 12(금)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개요 | 작품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5년 6월 25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